

닛신보<상하이>의 판매고 - 30억엔으로 대폭 증수

중국에 있는 닛신보의 자(子)회사인 닛신보<상하이>(日清紡<上海>)는 2006년(1~12월)의 판매고가 28억~30억엔으로 대폭 증수(增收)되었다. 2006년 9월부터는 제품 OEM(注文者 brand에 의한 生産)을 개시하여 중국사업은 한 층 더 확대되겠다.

2005년 12월에 닛신보와의 합판(合辦) 공장인 항주일면(杭州一綿)이 시정부(市政府)의 도시재개발사업으로 인한 퇴거통지(退去通知)로 니트, 직물의 가공설비를 조업정지하였다. 이로 인한 영향을 예측하고 당초에는 판매고를 2005년의 16억엔 실적에서 25% 증가한 20억엔을 예상하였다. 그러나 항주로부터 영파(寧波)로의 생산거점 이전이 예상보다는 트러블(trouble)이 별로 없이 순조롭게 추진되어 생산이 빨리 안정되었다고 하여 판매가 예상보다도 증수되었다.

벤티켄(維科)과의 합판으로 방직의 영파벤티켄면방직(寧波維科綿紡織)을 비롯하여 양가와의 합판으로 직물생산의 영파일중방직인염(寧波日中紡織印染), 편포(編布)생산의 양가니트나 절동니트(浙東 knit ; 寧波維科綿紡織의 關聯會社)에는 어디나 일본 또는 상하이로부터 기술자나 주재원을 파견 받아 철저하게 기술지도를 받기로 되었다. 그리하여 방직으로부터 가공까지 기술력의 향상이 기대 이상의 성과를 올리고 있다고 한다.

판매고의 내역은 실이 50%, 직물이 25%, 편포가 25%이며, 부인용뿐만 아니라 신사용 등 거의 모든 아이템(item)을 다루어 최근에는 중국 내에서 판매하는 일본계 어패럴에의 공급도 늘어나고 있다.

2006년 9월부터 T-셔츠 등의 제품 OEM 사업도 개시하였다. 기본적으로는 자사제휴공장(自社提携工場)에서 생산한 생지를 사용하며 타사로부터의 생지는 사용하지 않는다. 양가나 벳켄의 관련공장, “Choya”나 “나이가이셔츠” 등 닛신보 그룹의 봉제공장을 활용하여 당사 내에서 일관되게 생산하는 제품사업의 노하우를 확립하면서 사업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

항주일면은 현재도 방적, 직포의 설비를 가동하고 있다. 조업정지 시기는 미정(未定)이며, 시정부와의 교섭이 결정되는 대로 조업을 정지할 예정이다. ♣